東大新聞

發行人 金東益
編輯人 崔曉炯
主幹 宋燾

發行所
서울市中區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東大新聞社
電話交換 ㉥3130～9
本社直通 ㉥8498

每週日曜本發行

今週一言

방황하는 마음을 달래는것은 착한 일이며 調節된 마음은 큰 행복을 깃들게 한다。

<法句經에서>

師範大신축校舍起工

跳躍의 70年代를 향해 拍車

千餘坪에 地上3층 來年 4월 地上2층 준공

師範大學 신축교사 起工式이 지난 25일 11시 교양부 동편 공사장에서 蔡이사장과 金총장을 비롯한 學處長과 교직원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닥아올 70년대를 跳躍의 年代로 정하고, 69年을 그 「躍地의 해」로 정하여 연초부터 각종 建設에 박차를 가해오던 본교는 60년代의 마지막 문턱에서 師大 신축교사 기공식을 올림으로써 도약을 위한 躍地의 目標달성을 위해 總力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기공식은 三歸依로 올 마치고 金총장은 『전교 시작하여 讚經·분향및 起직원과 학생들이 耐之과절 工始屈로 끝났는데 가공식 양으로 노력한 보람이 하나나 결실을 맺게되어 약의 70년대는 전망이 밝다』고 말하고 『校勢의 발전에 도창과 학과증설등에 번 짓게되었다』고 말했다。

이번에 기공식을 갖게된 師範大學교사 전물은 총건평 1천여평 (지상3층, 지하1층)으로 우선 내년 4월까지 지상 2층까지만 1차로 준공하게 된다。

나머지 3층은 연차적으로 완공할 예정인데 동건물에는 지하실에 3개의강의실과 1개의 대형 실험실, 지상1층에는 강의실 6개와 화장실및 사무실이, 2층에는 7개의 강의실이 들어가게 된다。

개교 75평의 평짜리 32층의 강의실 16개가는 同 전물은 삼천산업과 3천백70만원의 공사가 진행되며 현교양학부건물과 1차 공사계약으로 공사가 진행되어 이용되도록 하연 게 된다。

기공식을 마치고 蔡이사장과 金총장 一行은 완성단계에 들어간 신축 운동장도 돌아봤다。

운동장은 당초 지난 10월말까지 완공목표로 工事를 진행해 왔으나 岩盤발파작업과 그 整地작업등이 어려워서 금년말께나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운동장공사는 정지작업을 마치고 계단만들기에 들어갔는데 선수 脫衣室과 샤워룸은 거의 완공단계에 있다。」

東大新聞

發行人 金東益
編輯人 崔曉炯
主幹 宋燾

發行所
서울市中區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東大新聞社
電話交換 ㉥3130～9
本社直通 ㉥8498

每週日曜本發行

◇70년대의 비약을위해 마지막가는 60년대의 문턱에서 師範大신축교사의 起工始屈을 하고있는 蔡이사장과 金총장을비롯한 學處長들—。

佛敎大生들=「讚佛歌」合唱 연습

三歸依、四弘誓願등

佛敎大에서는 불교의식의 참가하게 되는데, 앞으로는월 이번 月例法會에는 蔡碧岩이사장, 金東益총장을비 현대화와 그 통일화계획의 일환으로 27일부터 29일까지 매일 오후4시부터 三寶법회장에서 찬불가 합창연습을 한다。

우리말로 옮겨서 작사작곡된 三歸依, 四弘誓願등을 연습하게될 이번 기간중에는 불교학생회를 비롯한기눈 불교학생들이 원학사, 東國思想연구회등의 회원들과 불교대 학생들이 합창해 「찬불가를 왔었다。」

그런데 이미 일부에서는 불교의식에 三歸依등 찬불가를 부르고 있으나 일반화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며 본교의 경우만해도 불교행사가 있을때마다 明星女高 합창단이 찬불가를

쎄미나·招請강연회=

月2回씩 열기로

商經學會, 任員도 改選

본교 商經學會(KCCD)에서는 지난 14일 임원개선및 2학기 활동계획을위한 임시총회를 가졌다。

이번 임시총회에서 수립된 계획은 매월2회의 세미나및 2회의 초청강연을 개최할것 등이었다。 이계획에 따라25일에는 錢昌源교수의 「貿易士의 전반적인 개념」에대한 강연회가 있었다。

이날 임시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다음과같다。

▲회장=李德九(商2) ▲부회장=文相斗(商2) ▲총무=김달수(商2)

敎職 동문회

29일 임시총회

재경 敎職동문회 임시총京保불교대학장이 강연하게

12月1日— 月例法會개최

徐京保博士 설법

「現實」이란 연제로 徐 박사가 월례 法會를 열린다。 「불교 시 부터 중강 당에서 오전 9 1 12 회 제 2 月

「유엔」과 韓國統一

—최근 統韓決議案 可決을 보고

오늘의 問題

洪鍾赫

<法政大교수 行政大學院長>

제24차 「유엔」총회 정치위원회는 지난 17일하오 統韓決議案을 贊71 反29 기권22의 표결로 채택하고 동시에 공산권국가가 발의한 즉①주한외국군철수안 贊29 反19 기권32—否決 ②「언커크」해체안 贊30 反65 기권27—否決 ③한국문제토의 終熄案 贊29 反65 기권28—否決

이상과같이 政治委가 공산권이 제출한 3個決議案을 모두거부하고 統韓決議案이 「유엔」총회本會議가 최종안을 위해 이달말께 한국문제를 토의할때 한국문제에 관한유일한단일안건을상정케된다。

1、금년도 投票狀況과 「아프리카」지역의動向

統韓決議案에대한 투표상황은지난해의 贊71 反23 기권26표에서 금년엔 贊71 反29 기권22표로贊표가 1표줄고 반대가 6표늘어 결과적으로 작년보다는 7표가 우리에게 不利하게 나타났다。 그內容을 살펴보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지난해의 기권에서 찬성으로 태도가 好轉되었고 반대로 지난해 우리측에 찬성했던 중앙「아프리카」가반대로 「리비안」「브룬디」「남예멘」「탄지니안」「잠비안」등 「아프리카」국가가 지난해 3표 내지5표가 더 늘었으며, 이번 계속되어왔다。 2년간의 脅迫은 美蘇共委에서 해결을 또한 우리측에 贊票를 던졌던 우방국가인 아프리카의 보수나난 결석, 결과적으로 贊成票가 지난해보다 1표가줄었다。 그밖에 決議案은 「아프리카」국가중에서 지난해보다 3표 내지5표가 더 늘었으며, 이번 계속되어왔다。 2년간의 脅迫은 美蘇共委에서 해결을 못했고 南北대표협정도실패했다。

2、유엔과 韓國

韓國은 2次大戰의 戰後處理의 부산물로서 외세의 인위적인 외교금지령에 의해 分斷된채 독립했다。 작년도 사업계획등을 토의하게될 이번 임시총회에 교직원들의 많은 참석을바라고있다。

3、中共贊票增加에 警戒心

금년에는 中共加入문제에 예 국문제에 대한 「표의가름」은 「아프리카」에서 결정짓고 「아프리카」에서라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므로 外務部는 보다 강력한 親善외교를 「아프리카」地域에 치중하여야 하며, 특히 초청 방문의 강화를 앞으로의 資利外交의 삼아야할것이다。

4、結論

「유엔」총회 24차까지의 情勢로서 오는 29일 오후3시부터 교수실에서 열린다。 교지등문들의 활동과 신년도 사업계획등을 토의하게될 이번 임시총회에 교직원들의 많은 참석을바라고있다。

제7회 본사學術賞 수상자

本社 제7회學術賞 수상자가 다음과같이 결정되었읍니다。 대학의 학구적기들을 공고히 하고 학생들의 창의력을 북돋기 위해 제정한 이 학술상은 전공분야별로 연구論文과 文學作品을 모집、심사를 하여 시상하고있읍니다。 ◇入賞者는 11월 28일(金)오전중으로 來社하기 바랍니다。

◇人文社會科學賞
▲本 賞=李三秀 (農經科 3年)
「食糧自給化를 위한 穀價政策의 方向」
▲장려상=金世圭 (史學科 2年)
「韓末義兵의 性格」

◇自然科學賞
▲本 賞=宣文勳 (食工科 3年)
「葡萄酒와 酒精을 利用한」酢酸醱酵研究
▲장려상=없음

◇創作文學賞
▲本 賞=임성운 (國文科 2年)
小說「불타는 나팔소리」
▲장려상=金善鶴 (國文科 4年)
詩「불망산생각」外 4편
朴亢緖 (演劇映畵科 4年)
戲曲「우리들의 죽음」

◇審査委員
△人文社會科學部門=金仁鴻·張源宗·安啓賢·韓炫·李榮東교수
△自然科學部門=金昌湜·權鎭東교수
△創作文學部門=童湖(詩)·崔仁勳(小說)·吳學榮(戲曲)

1969年 11月 27日
東大新聞社

本賞등6명—풍성한수확

佛敎學生會 창립1주년

記念講演등 성황

會長에 李瑞行군 뽑고

전국 대학생 불교연합회 창립 1주년 기념강연회및 정기총회가 지난21일 오후3시부터 C309강의실과 교京保불교대학장의 「새시대와 불교」 등 2백여 회원및 학생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룬 이번 총회에서는 徐교수의 「佛傳記에 있어서의 몇가지 散見」, 元義範교수의 「불교 학생신문」 등 수식당에서 각각 열렸다。 우리의 나아갈 길」, 洪庭植교수의 「불교 학생신문」 등 이어 회의를 마치고 교수식당에서 제16회 정기합평회를 열기로하는 한편, 24일부터 29일까지는 시내 교수식당에서 제16회 정기합평회를 열기로 했다。

이번에 갖는 合評會서는 회원들의 보다알찬 작품향상과 70년도의 작품활동에대한 방향도 모색할 합평회 대상작품은 지난 20일에 끝난 「現國文學燕作」(재학생 작품)으로 李健熙(商)·申東燮(經)·金光춘(經)·金相眞(經)·裵忠熙(商)·崔榮哲(商)·金榮洙(政)=朴堤千(國)·文眞姬(國) 작품이 전시되고 있다。

社告

本社 제7회學術賞 수상자가 다음과같이 결정되었읍니다。 대학의 학구적기들을 공고히 하고 학생들의 창의력을 북돋기위해 제정한 이 학술상은 전공분야별로 연구論文과 文學作品을 모집、심사를 하여 시상하고있읍니다。 ◇入賞者는 11월 28일(金)오전중으로 來社하기 바랍니다。

敎授動靜

經營科 종합우승

經商大 체육대회 성황

경상대학 학생회 주최, 제2회 경상대학장배 쟁탈 각협조를 해온 崔杜烈 치안과대학 체육대회가 지난 20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본교교정에서 열리었는데 學長盃는 종합우승을한 經營學科에서 차지했다。 경상대 각과 주임교수와 교수및 학생5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체육대회는 경상대학 회장 「萬醫(經營·3)」군의 개회사로 시작되었다。

張源宗경상대학장은 격려사에서 『학구에 전념하는 경상학도들은 체육을통해서 진력을 더욱 도모하라고』 당부했다。

릴레이와 배구 두 종목의 경기를가진 이날의 전적은 다음과같다。

▲종합우승=경영학과▲종합준우승=경제학과▲응원상=상학과

「교통안전」백50部 警行科生에 寄贈

警察 警行科학과의 교통안전협회 주최 제1회 교통안전 작문 공모에 응한 본교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의 참고자료로서 보내올 예정이다。

▲徐基燮(警行科주임) 교수=치안국에서 科敎材로써 月刊 「교통안전」을 매달중정한다는 소식에다, 大韓劍道會에 검도四段允許證을받아 三段10여년만에 기쁜소식이 겹친다고 회색이 만면。

▲徐京保(佛敎大학장) 박사=불교의 생활철학을 정리하여 「불교와 生活哲學」이라는 엣한 세이를 매달중 교 세이를 述。 한달후에는 佛敎哲學 及社刊으로 出刊되리라고。

東國詩畵展

鍾路「금하」다방서

동대 문학 발전의 추축을이어온 東國文學會에서는 오는 30일 오후1시부터구내 「금하다방」(신신백화점 건편)에서 詩畵展을 열기로 했다。

갖는 合評會서는 회원들의 보다알찬 작품향상과 70년도의 작품활동에대한 방향도 모색할 합평회 대상작품은 지난 20일에 끝난 「現國文學燕作」(재학생 작품)으로 李健熙(商)·申東燮(經)·金光춘(經)·金相眞(經)·裵忠熙(商)·崔榮哲(商)·金榮洙(政)=朴堤千(國)·文眞姬(國) 작품이 전시되고 있다。

農經科동창회創立

蔡박사학위祝賀宴

도

농업경제과 동창회 蔡丙錫박사학위 축하연이 지난 22일 오후2시 구내 「백상의 집」에서 열렸다。 선배、재학생 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축하연은 오상은(農經4)군의 사회로 경과보고와 학회장및 졸업생 대표는 蔡박사에게 기념품을 증정했다。

이날 4시부터는 농경과 창립총회가 열려 임원선출도 있었는데, 회장에 玉武錫(農協근무·1期)부회장에 유종희(週末農場근무·2期)、차석부회장 權五甲(畢業家·3期)、총무 김국진(農經科助敎·5期)등이 각각 선출되었다。

아무것도 없으면 결리지않는다。

아무것도 없으면 결리지않는다。 무엇이 있으니까 결리다。 아무것도없다면 결릴것이 없고 없다면 마음에 결릴것도 없다。 그러나무엇이거기에있어서결리다고할때 마음에 결릴것이 있어야 결리는것을 가르쳐서 곧 그러나 色은 어디까지나결림(質碍)이다。 色은 마음 혹은 정신적 요소 그것 혼자만도 아니다。 色은 어디까지나 결림 바로 그것이 기때문에 결림없이 정신만이 있어도 色은없고, 또 정신없이 물질만이 있어도色은없다。 그것은 마치 눈이 눈을 볼수없고 소리가 소리를 들을수 없는거나 마찬가지이다。 色은 마음이있고 거기에 비로서 있다。 마음이야 있건 없건 육체야 있건없건 마음에 걸리는육체도 육체에결리는 마음도 없을때 色은없다。 色의세계는 거울의 세계와같다。

아무것도 그안에 비치지 않는 거울도 있을수없고 없는 물건을 만들어서 비치는거울도있을수없다。 거울과 그안에 비친 세계와는 어절수 없이 서로 맞걸려있다。

그렇게 너만 이라고도 「만이라고도 할수없이 어절수없이 너와 내가 서로 맞걸려 있는 바로 그세계가 色의 세계이다。 마음에도 발에도 아무 결림이없을때 비로서 色이 없다。

<元義範>

수리(보)

色

色(Kupai質碍)이라고 한다。 그러나 色은 어디까지나결림(質碍)이다。 色은 마음 혹은 정신적 요소 그것 혼자만도 아니다。 色은 어디까지나 결림 바로 그것이 기때문에 결림없이 정신만이 있어도 色은없고, 또 정신없이 물질만이 있어도色은없다。 그것은 마치 눈이 눈을 볼수없고 소리가 소리를 들을수 없는거나 마찬가지이다。 色은 마음이있고 거기에 비로서 있다。 마음이야 있건 없건 육체야 있건없건 마음에 걸리는육체도 육체에결리는 마음도 없을때 色은없다。 色의세계는 거울의 세계와같다。

아무것도 그안에 비치지 않는 거울도 있을수없고 없는 물건을 만들어서 비치는거울도있을수없다。 거울과 그안에 비친 세계와는 어절수 없이 서로 맞걸려있다。

그렇게 너만 이라고도 「만이라고도 할수없이 어절수없이 너와 내가 서로 맞걸려 있는 바로 그세계가 色의 세계이다。 마음에도 발에도 아무 결림이없을때 비로서 色이 없다。

<元義範>

就職率 好調

20日현재、經商、農林大등

學生課에서는 지난 20일 현재, 각종취직시험 합격자22명을 발표하였다。 밝혀진 바에의한면 예년과비슷한 취직율을 보였으나, 금융기관만이 시험이끝났을 뿐 理工系등은 아직 채용시험이 끝나지 않아계속 취직자수가 늘어날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반기업체에 격한 경우는 본인들이 직접 연락해주지 않아 격여부를 확실하지 않으나 취직자수는 집계된 숫자보다 훨씬많을것으로 예상된다。

20일 현재 밝혀진 공개시험 합격자 명단은 다음과같다。

▲韓一銀行=申東台(經)·鄭良根(商)·黃榮哲(營)
▲農協中央會=李運永(農)
▲殘부직 협회=朴贊一(農)、조상각(商)、柳一誠(銀行)=洪承五(經)
▲國民銀行=李雲鶴(商)、鄭昌彬(行政)、金鄕龍(行政)
▲朝興行銀=李富性(經濟科卒)、李秀男(經濟科卒)
▲國際電氣=李健熙(商)
▲日新産業=申東燮(經)
▲三養食品=金光춘(經)、金相眞(經)
▲三養社=裵忠熙(營)、崔榮哲(商)、金榮洙(政)
▲商業銀行=金光춘(經)
▲主婦生活社=朴堤千(國)

月例法會

徐京保博士 설법

12月1日—

敎職동문회

29일 임시총회

東國詩畵展

鍾路「금하」다방서

農經科동창회創立

蔡박사학위祝賀宴

도

月刊文學 12월호

임시정가 200원

—수필—
鍾路 夏根 書雨 愛春 勳錫 旭
京文 洪殷 昌寅 海東 泌世
朴 朴 朴 李 李 鄭 崔 河 韓 許

拒絶 徐槿培
解逝 群郭鶴松
가물 치李光淑
빌라도와 그아내 宋媛熙
女難 金秉老
家族(最終回) 朴榮濬

天地有情(13) 徐廷柱
室內作家論(9) 高銀

—卿春秀雲來天洙稷我夫勳駿寅培寧蘭哲
詩 石永良滋龍谷基昌烈盛昇載泰春海炳
申尹黃具朴具全金朴李李孫裵金李文金

特輯2·60年代의 文學
文學史的 位置 千二斗
60年代文學의이슈 金炳傑
60年代의詩人들 金春洙
60年代의作家들 鄭昌範
批評의 變貌 金允植
앙케에트·60年代作家와 代表作10選

文學神話論③ 노스롭프라이 金相一譯

詩 文藝誌詩欄의 褪色 李東柱
대상묘사의두가지타입 金光林
難解한 小說들 尹炳魯
抽象과 具象 崔仁勳

創作 童話 朴喆熙·趙泰一·尹炳魯·河有祥
文人住所錄 관계로 변동이 있는 문인들의 주소를찾습니다。변동이있으신분은연락하여주십시요。

60年代文學의 送別 特輯號!

서울종로구세종로 81～6
예총회관 302호 ㉥ 8166

絶贊 대판 販売中!
金思燁 古今思想界에서
著 쇼펜하우어
訳 影 巨 朴
슬픔과 사랑의 哲學
이책은, 人間의 不幸은 宿命的이라고 말하는 著者가 침된 삶의 지혜를 提示한 새롭고 뚜렷한 處世論이며…人生의 가시밭에서 헤매는 우리들에게 永遠한 마음의 糧食이 될것이다.
高級模造洋裝 값170원
新潮文化社 刊
TEL (72)·3652

今年度 세계의 베스트셀러!
梁山泊의 세딸
中共治下에서 벌어지는 人間의 갈등, 휴매니즘의 갈구등을 절실하게 파헤친 퍼얼 벅文学의 決定版!
퍼얼 S·벅作/張旺祿譯
四六版洋裝 定價 550원
文藝出版社
Tel. 75-0891

讚! 初版 80만에 賣盡
69年度 노오벨文學賞受賞作
고도를 기다리며
S·베케트作/梨大敎授 洪福柔譯
방황하는 現代人의 內面世界를 파헤친 S·베케트의 代表作!
絶望속에서 神을 기다리는 人間의 안타까운 모습—
(附:原文收録)
定價 400원
文藝出版社
Tel. 75-0891

社說

KUSA의 새물결 운동

『쉴사이 없이 변화하는현대의 상황속에서 가장 큰 깔등과 고민을 지닌 것이〈젊은이〉며, 또 가장 순수한꿈과 정열을 지닌 것도〈젊은이〉다。특히 과도 사회로 일컫어지는 우리나라에서 젊은 대학생의 역할은 중차대(重且大)하다。 여기 보람찬 오늘을 누림으로써 희망의 내일을 기약하는〈한국 유네스코 학생협회〉(KUSA)의 탄생을 보았다』고 탄생의 이유를 언명한〈쿠사〉는 그목적도 다음같이분명하게 선언하였다。

『교육、과학、문화의 발전을 통해 인류의 마음속에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 영원한 세계평화와 인류복지를 이룩하려고 전세계 지성이 한 자리에 모인 유네스코의 숭고한 정신과 이념에 힘입어 1965년이래、한국의 젊은 지성들은〈새물결〉운동의 기치아래、날마다 자기를 새롭게하고、자각적 탐구와 실천적 참여를 통하여 대연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며、진취적 창조적인 대학풍토를 조성함은 물론、학원과 사회에〈새물결〉운동정신을 전파하여 인간관계의 개선과 사회정의의 실현에 이바지하려고 힘쓴다』고。

그다음 새물결운동의 정신은〈한국적 역사의 비극을 거울삼아 심각하고 철저하며 자기를 반성하는 자각운동〉이고 또〈내일의 세계에 참여하기위하여 자신의 주변일부터 착수하고 개선하여 나가는 실천운동〉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그러니까、〈쿠사〉는 한국적 실을 직시하고、내일의 창조를 위하여 작은일、즉 자신의 주변 일부터 착실히 실천해 가는 학생운동 단체임을 누구나 얼른 알수 있다。

특히〈커다란 구호나 선전을 위한 시효과를 노리는〉재래식 학생운동이 아니고〈한 알의 밀알이 땅속에서 썩어 수많은 열매를 맺듯이〉 새물결운동은 자기 희생과 자기 참회에 바탕을 둔〈자신의 대화에서 타인의 대화〉로 그리고 점차적으로 가까운 이웃에서 먼 이웃으로 깨워주는 조용한 대화운동임을 강조하고있다。 창립대회(創立大會)만은 신문지상에 대서특필하여 막대한 광고료까지 지불하며 선전하던 학생단체가 그후 단체의 행방조차 묘연하여지는 용두사미(龍頭蛇尾)식 운동이 아니고 도리혀 대외적 건시효과는 무시하고 대내적으로 열매를 영글게하는 조용한 대화운동임을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 조용한 대화는 자기와 자기가 심각하게 조용히대화하는 독백(獨白)적 자기대화에서 시작하여 가까운 이웃、즉 같은 학교의 학우사이에 조용한 대화운동을 일으키고、다음으로는 다른학교 나가서는 먼 이웃 즉 외국학생들사이까지도 조용한 대화운동이 전개되도록 운동범위를 넓디간다。 이 같은 대화운동은 곧 유네스코의 숭고한 정신과 이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쿠사의 새물결운동〉은 조용한 대화로서、세월을 허송하는 창백한 지성인의 비생산적(非生産的) 운동을 배격한다。

새물결운동은〈대학사회의 불신과 불의를 밀어내고 아카데미즘으로 장식된 대학풍토위에다 새로운 모랄로 새로운 대학생상(大學生像)을 창조하고 보다 국가발전과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해 신의있고 명랑한 사회를 건설하여 떨게 생산적 학생운동〉임을 명시한다。그리고새물결운동은〈쿠사활동의 이상이오、한국학생운동의 전형〉을 형성함 운동을 자부하고 있다。

그리고 쿠사의 새물결운동은 이 운동의 구성요소도〈나〉의 주체적 자각과〈나〉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따라서 나날이 나를 새롭게 형성하는〈자기갱신〉이 새물결운동의 출발점이며、동시에 귀결점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자기성실을 위하여 새물결운동은 첫째、자기이해와 자기긍정、둘째 고도의 성실한 직시와 자각적 탐구와 진취적 창의성의 발휘、다섯째、교양등 다섯가지 조건을 제시하고、이 다섯가지 조건의 충족은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된 장소에서 이룩되는것이 아니고〈부단히 변화하고 교섭하는 주변과의 상호관계속에서〉이룩된다고 한다。즉、〈대화와 이해와 협동의 전위에서〉이루어 진다는 것이오늘、세계의 대학사회는 기성에 의하여 대항하는〈스튜덴트·파워〉에 의하여 근저로부터 흔들리고 있고 또 모든 것과 단절된 상호에서 자기도취에 젖은〈히리〉속에 있다。이같은 풍조와는 달리、조용한 대화와 상호 이해와 새로운 대학생상의 형성을 지향하는 쿠사의 새물결운동은 대한사회에 문자(文字)그대로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는 계기를 마련하여주고있다。더구나、이같은 새물결운동이 국제적기구、유네스코의 산하단체인〈쿠사〉가 전개하는 국제적 운동의 앞날에 크게 기대하는 것이다。

韓國美學의 形成과 그 特質

김 현 〈평론가〉

우선 60년대의 文學을 이야기하기전에 60년대문학을 전개할수 있게끔 그 토입부 역할을한 戰後文學을 살펴보려한다。戰後文學의 특질은 그무정제한 개방성에있다。

이러한 극단의 개방성은 戰後 평론이 보여준 극도의 개방성과 밀접하게 대응된다。그개방성은 점차로 작가 자신의 체질 수용능력에따라 작가의 숙명으로 변했고、그 렇지못한 작가들은 붓을 꺾고있다。

戰後문학의 또하나의특성은 그개방성과 깊이 연결되어 절망·허무의 제스츄어인데、그것이 숙명적 대응으로 변모하여 각자자신의 운명이 되지않으면배치노릇으로 끝나고 탄다。

구라파적 허무의 제스츄어보다는 東洋的 체념의 제스츄어를 취한 작가들이 오래 살아 남을 수 있었던것은 그 때문이다。

결국 60년대 문학의특징은 제스츄어와 숙명의 관계를「의식화」한데 있다。갖수성의 혁명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소위 불행의 제스츄어를 肉化하는 놀력의 개발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그것은 의식하는 自我의 의식이다。이것은 詩와 小說의 경우에 다같이 적용된다。 그러나 60년대 문학의 약점은、의식하는 의식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맹목적인 힘의 형이 그의 결과 그 時代 斷面 의 도식으로서의 자연수용태도로 표출시키고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고時代에국한된 약점이며、그 이후에 추리 되는 時代的 狀況에 적응될수는 없다。다만 前時代的인 그 약속이 그대로 요늘날 현실에 그러한 無償의 공여는 아무런 의의나 가치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다。작가 인 두 존재개념 속에서 엇갈린 모순의 환경을가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人間의 문제는 영원히 동일하다는 새로운 아포리에 부닥뜨려지고야 마는것이다。우리가 문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自然 밖에서 도 자연을 보다 조직화한것이 아니고 그 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60년대의 문학은 이러한 生態的 制約속에서 個人(我)의 의식화에 치중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60년대의 의식 自由와 좌절이라는도식은 그러한 것은 아니다。하나도나 공적에 속한다。 그 의식의 문학 의 이유를 획 표를 통해 독한다。그 존재 의식하는 그것은 의식의 패턴 화될 때 지나지 않는 제스츄어에 지나지 않는다。최근의 몇몇 詩경향 온 그러한 관점에서 우 려의 대상이 된다。

이제 여기서、주이진테마인「60년대 문학의 형성과 특질」에 비추어 그 한국 결산」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는 않겠다。 그것은 시간 사정 때문이다。 그러나 60년대 문학의 형성과 특질을 간략하게 말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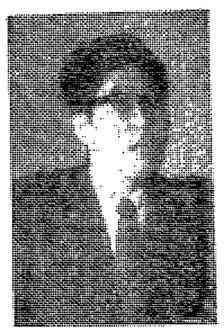
60년대 문학은 이러한 生態的 制約속에서 個人(我)의 의식화에 치중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60년대의 의식 自由와 좌절이라는도식은 그러한 것은 아니다。하나도나 공적에 속한다。 그 의식의 문학 의 이유를 획 표를 통해 독한다。그 존재 의식하는 그것은 의식의 패턴 화될 때 지나지 않는 제스츄어에 지나지 않는다。최근의 몇몇 詩경향 온 그러한 관점에서 우 려의 대상이 된다。

이제 여기서、주이진테마인「60년대 문학의 형성과 특질」에 비추어 그 한국 결산」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는 않겠다。 그것은 시간 사정 때문이다。 그러나 60년대 문학의 형성과 특질을 간략하게 말하면 다음과 같다。

1. 60년대 문학은 이제 그 막을 내리고 70년대에로의 발돋움을 하려는 한다。 그 60년대의 마지막 가을을 수확하는 東國文學·文學심포지움이 지난 17일 본교 소극장에서 열렸다。 이날의 강사로는 李炯基(同門詩人·文理大강사)씨、崔仁勳(小說家)씨등 네명의 강사중 李炯基씨는 (同門詩人)씨와 김현(評論家)씨의 강연요지를 발췌하여 보면……<편집자>

<김 현씨>


<李炯基씨>

韓國詩의 60年代와 70年代

李炯基 <詩人>

오늘날 新人들의 詩的 共通因數는 自然과의 訣別과 內面意識의 추구라는 두가지로 要約할수있다。

첫째、自然과의 訣別은 自然을 價値意識 또는 美意識의 기준으로 삼는일체의 詩的營爲가 배제되었다는사실을 怒味한다。 오랫동안 價値意識、美意識의 源泉이되어왔으며 그것은 自然 歸依의 思想을 낳고 수많은 抒情詩를 낳았다。 해방 직후의 정치적혼란과 50년대의 전쟁의 暗煙 속에서도 韓國詩에서 차지하는 自然의 비중은 매우 컸으며 現代에 이르러서도 强하지는 못할 自然은 오랫동안 價値 意識、美意識의 源泉이되어왔으며 그것은 自然 歸依의 思想을 낳고 수많은 抒情詩를 낳았다。

그러나 이것은 詩人들의 內面意識의 추구라는 방법의 기준으로 삼는일체의 詩的營爲가 배제되었다는사실을 怒味한다。 오랫동안 價値 意識、美意識의 源泉이되어왔으며 그것은 自然 歸依의 思想을 낳고 수많은 抒情詩를 낳았다。

그러나 이것은 詩人들의 內面意識의 추구라는 방법의 기준으로 삼는일체의 詩的營爲가 배제되었다는사실을 怒味한다。

둘째、自然과의 訣別은 自然과의 內面意識의 추구라는 두가지로 要約할수있다。

그래서 60년대의 시인들은 共同體意識의 次元에서보다 單獨者 意識의 次元에서 사회적 매카니즘의 重壓에 대해 고독한 저항을 시도하고있는것이다。

그렇다면 60년대 시인들의 內面의식추구나 사회참여의식은 다같이 自然과의 訣別을 불가피하게만든 現代文明—그것에 對應하는 두개의 詩的태도라 할수있을 것이다。

개개의 시인 또는 개개의 작품이 主題나 방법면에서 前例없는 다양성을 보이고 있는 경향은 自然과 대체될만한 새로운 기준—즉、詩의 기준이 발견 되지 않았다는 모색의 반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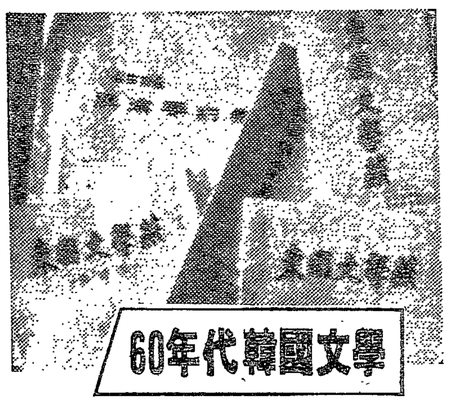
그래서 60년대의 시인들은 共同體意識의 次元에서 보다 單獨者 意識의 次元에서 사회적 매카니즘의 重壓에 대해 고독한 저항을 시도하고있는것이다。

그렇다면 60년대 시인들의 內面의식추구나 사회참여의식은 다같이 自然과의 訣別을 불가피하게만든 現代文明—그것에 對應하는 두개의 詩的태도라 할수있을 것이다。

개개의 시인 또는 개개의 작품이 主題나 방법면에서 前例없는 다양성을 보이고 있는 경향은 自然과 대체될만한 새로운 기준—즉、詩의 기준이 발견 되지 않았다는 모색의 반증이다。

이러한 독자의 외면을 안면서도 무슨소린지 알수없는 詩를 쓰지 않을수 없는 詩人들에 고민을70년대에 갈수록 더욱 深化 될것이다。 【文實·頃】

韓國文學·文學심포지움



無節制한 開放性

宿命的 제스츄어 意識化

○韓國文學의 60년대도 이제 그 막을 내리고 70년대에로의 발돋움을 하려는 한다。 그 60년대의 마지막 가을을 수확하는 東國文學·文學심포지움이 지난 17일 본교 소극장에서 열렸다。 이날의 강사로는 崔仁勳(小說家)씨등 네명의 강사중 李炯基씨는 (同門詩人)씨와 김현(評論家)씨의 강연요지를 발췌하여 보면……<편집자>

○내리고 70년대에로의 발돋움을 하려는 한다。 그 60년대의 마지막 가을을 수확하는 東國文學·文學심포지움이 지난 17일 본교 소극장에서 열렸다。 이날의 강사로는 崔仁勳(小說家)씨등 네명의 강사중 李炯基씨는 (同門詩人)씨와 김현(評論家)씨의 강연요지를 발췌하여 보면……<편집자>

○(同門詩人)씨와 김현(評論家)씨의 강연요지를 발췌하여 보면……<편집자>

多樣한 摸索과 實驗

새 價値基準 發見 못해

李丙疇 <文理大교수>

60년대 詩의 중요한 특징이기는 하나 그것만이 60년대의 詩的특징일 수는없다。

60년대 詩의 또하나중요한경향으로는 사회적 참여의식이 강한 一群의 시인들이다。

그들의 主題와 素材는 사회적인 것이기때문에 그들역시自然을 배제한다。 그러나 그들도 그들이指向하는바 合唱의 정신과 는달리 속상황에 놓인 現代人의 고독을 되씹는다。

그래서 60년대의 참여 시인들은 共同體意識의次元에서보다 單獨者 意識의 次元에서 사회적 매카니즘의 重壓에 대해 고독한 저항을 시도하고있는것이다。

그렇다면 60년대 시인들의 內面의식추구나 사회참여의식은 다같이 自然과의 訣別을 불가피하게만든 現代文明—그것에 對應하는 두개의 詩的태도라 할수있을 것이다。

개개의 시인 또는 개개의 작품이 主題나 방법면에서 前例없는 다양성을 보이고 있는 경향은 自然과 대체될만한 새로운 기준—즉、詩의 기준이 발견 되지 않았다는 모색의 반증이다。

이러한 독자의 외면을 안면서도 무슨소린지 알수없는 詩를 쓰지 않을수 없는 詩人들에 고민을70년대에 갈수록 더욱 深化 될것이다。 【文實·頃】

大學閑話

歲寒圖

松柏은 사철 시들지않는 것이니 歲寒 이후의 자네는 역시 聖人께 칭찬을 받을만한 바가아니겠는가。聖人께서 특별히 칭찬한것은 한갓 뛰어야 시드는 작은 절조와 굳은 절개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역시 歲寒 느끼는바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西漢의 순박한 시대에 汲黯·鄭當時와 같은 어진이로서 손님이 집에 시세와 더불어 성하고 덜하고 했으며、下규의 榜門과 같은일은 너무 박절했으니 서글픈 일이다。 阮堂老人은 쓰다。』

이 「歲寒圖」는 舍官으로 北京에 가있는 李尙迪에게 그려보낸 絕品이다。

위의 譯文을 읽노라면 七面烏같은 오늘의 인심이 몹시도 부끄럽다。사람보기 싫어하는 屈烏가 槪行하니말이다。

歲寒圖

「歲寒圖」는 구면이라 무척 반가웠다。내 청맹관으로서 秋史 야롯한 인연으로 「韓國繪畫大觀」이란 門外의 책을 출판하 는데 후수를 하게되어 우리의 曇香을 꽤 읽었다。손방으로손 호젓한 눈요기였다。

그 가운데서 秋史 金正喜의 「歲寒圖」는 아주 잔결한 듯하지만 앙상한 古柏이 한그루、그를 대돌밭처럼 꼬장한 柏松이 우뚝섰고、문방에는 성성한 잣나무가 나란히 서져있는것이 이 그림의 전부다。

그러나 이 그림은 뜯어보면 볼사록 눈을 사로잡고 맛을 앗는다。일찌기 두어번 더 읽어 보았지만 가슴이 후련해지는 細描의 顯微에 불과하다。이를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지난해「晩學·大藝」의 두 글자 文編을 부쳐왔고、올해는 또「우耕」이 이세상 사람인데 초연히 권 세를 추세하는 테두리를 떠나 권력으로 나를 대하지 않고 권력이 나를 대하지 않는다는 말인가。太史公의 말이그 것인가。孔子가 말씀하시기를「歲寒 연후에야 松柏의시들을 알게 된다」고 했으니 나는 더구나 세상은 물결처럼 권력만을 추세하는데 이처럼 시들지 않고、바다밖 한 가에게 돌리지 않고 시들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권력이 아니고 무엇이랴。 나는 이 기를 세상이 내게대해

自然科學

實用性있는 研究높이평가 광범위한 자료文章化돼야

□□□□金昌湜

〈한국大都市와물〉이란 논문은 도시사회의 문제점이다.

논문전체를 통해서 볼 때 과제에 대한 광범한 통계와 자료를 수집하였다는 것은 필자가 애써 노력한 일면이 보여 가장 자료를 나열하고 있는듯한 文致같이 생각된다. 정 총괄적으로 좋은 과제와 자료를 가지고도 이것을 文章化하지못했고 따라서 대외적으로 발표할 것이 못됨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權鎭東

〈포도주와 酒精을 이용한 酢酸발효연구〉를 읽고

우리들의 식생활에서 氷酢酸의 사용에서오는 害毒을 막는 材는 시기적으로 本硏究의 격할 하며 어려운 操作인 食酢酸菌의 分離를 잘하여 실용가치가 있는 有用菌株를 발견한것을 높이 평가한다.

醱酵의 力量을 벗어날만한 작품으로 단정한다. 참고논문의 인용도 잘했다고 본다.

□□□□金昌湜

〈한국大都市와물〉이란 논문은 지방자치성의 필요성을 중앙집권제와 對比하고 지역적 발전과 관련시켜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文章도 1학년 학생으로서는 상당히 세련된 점을 엿볼수있다.

그런데 이論文 역시 문제의 소재를 좀더 치밀하게 체계적으로 밝혀주지 못한것이 흠이되고 있다. 앞으로 좀더 노력하면 좋은 논문을 볼수있다.

□□□□權鎭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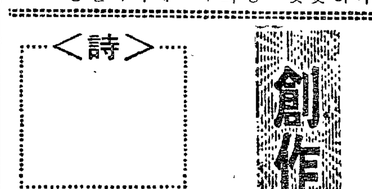
〈포도주와 酒精을 이용한 酢酸발효연구〉를 읽고 學 합성품인 氷酢酸의 사용에서오는 害毒을 막는 材는 시기적으로 本硏究의 격할 하며 어려운 操作인 食酢酸菌의 分離를 잘하여 실용가치가 있는 有用菌株를 발견한것을 높이 평가한다.

論題는 現時點에 있어서 상할 만하다. 그러나 이 자료를 정연하게 정리하지 않고 그냥 통계 및 표현했다고는 볼수 없다. 또 食酢原料로써 葡萄만을 택하지않고 「코스트」節減을위해 酸酸醱酵포도주와 酒粕를 各7대3, 6대4等의 비율로 食酢酸 제조를 試圖하여좋은 결과를 내었으며 실험절차 論文構制等 學文의 力量을 벗어날만한 작품으로 인용도 잘했다고 본다.

□□□□金昌湜

〈한국大都市와물〉이란 논문전체를 통해서 볼 때 과제에 대한 광범한 통계와 자료를 수집하였다는 것은 필자가 애써 노력한 일면이 보여 가장 자료를 나열하고 있는듯한 文致같이 생각된다. 정 총괄적으로 좋은 과제와 자료를 가지고도 이것을 文章化하지못했고 따라서 대외적으로 발표할 것이 못됨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權鎭東



創作文學

〈詩〉

〈小說〉

〈劇曲〉

□□□□崔仁勳

□□□□韓湖

□□□□李明柱

□□□□吳學榮

□□□□安啓賢

□□□□金仁鴻

□□□□張源宗

□□□□韓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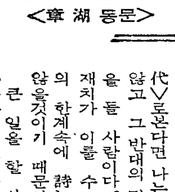
□□□□金昌先

□□□□李乘東

□□□□金昌湜

□□□□權鎭東

□□□□章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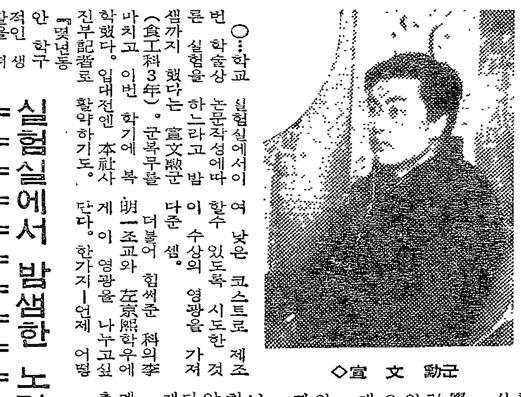


제 7 회 學術賞 自然科學分野 本賞 수상작

葡萄酒와 酒精을 이용한 酢酸발효硏究

宣文勳 (食工科 3年)

오늘에 이르러 우리나라에서도 포도생산의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있는데 반해 농가소득의 증대를 위해서는 生食뿐만 아니라 加工분야의 개발도 시급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포도가공에 대해서는 오랜역사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있지만 지금 우리생활에서 포도 가공품이 조미료로 사용되지는 않고있다。 포도가공은 1789년 Lovosier가 醱酵液으로 부터 酒精과 炭酸가스및食酢酸을 발견한데서시작되고, Kutzing (1837년)은 酒精 含有液이 Acetic Acid로 산화되는 것은 미생물에 의한 작용인 것을 발견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근래에 와서 흔히 볼수 있는 포도주는 일반가정 혹은 대규모의 공장에서생산하고 있는 실정이며 열마전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일반가정에서는 인체에 유독한 빙초산을 稀釋하여 사용하던 실정에 비추어 볼때 포도주 양조에서 버려지는 酸敗된포도주들이 용한 가공분야의 개발도 시급한 문제라 하겠다。포도주의 발효는 Sacchasomyces ellipoideus 群의 酵母에 의해서 일어나나 순수酵母의 이식은 절대로 필요한것은 아니다。本실험에서는 우리나라포도의 품종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고있는 campbell Early 種을 주원료로 하여 실험하였고 또 6종의 Aceto bactor를 분리하여 가장우수한 菌株를 Khattack 씨의 Laboratory type Vinegar Generator에의한 것과 재래식 병법에 의한포도식초산 발효실험을 하였다。



◇宣文勳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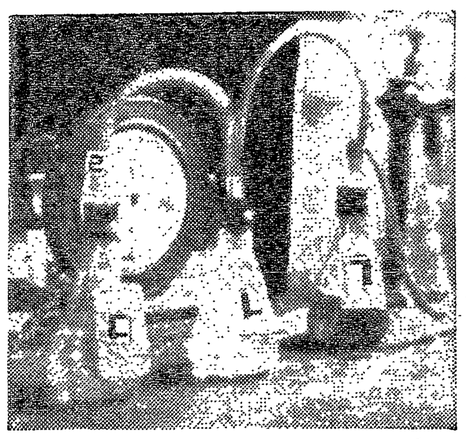
실험실에서 밤샘한 노력結實 실생활에 이용될 연구하고파

○…학교 실험실에서이 번 낮은 코스트로 제조 학술상 논문작성에따 할수 있도록 시도한 것 실험을 하느라고 밤이 수상의 영광을 가져 온 다준 셈。

더불어 힘써준 科의李明一조교와 左京熙학우에게 이 영광을 나누고싶다。

○…본사의 학술상 제정이 7회에 이르기까지 이 宣군의 앞길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독하는 발은넉넉히 할 일이다。」

◇宣文勳군



◇사진A·通氣法에의한 酢酸발효실험。」
ㄱ.酢酸발효용 培地
ㄴ.살균된 종류수
ㄷ.진한 황산
ㄹ.공기주입구

□實驗 및 방법□

실험재료

①8월말경 생산된 Compbell Early種(경기도양주군産)을 원료로한 포도주와 市販用 酒精을 사용하였다。」

②포도주 발효。

포도를 세척, 破碎한 것을 살균된용기에3/5정도 넣어서 糖度를 24度로 補糖하여 7일간 자연발효시켜 전발효를 끝낸후 침전물을 제거하고 발효전을 장치하여 후발효를했다。후발효를끝낸 포도주 100㎖을 4%Naoh로pH 7·0으로 조정하고 증류장치에 의해 90㎖을 유출 Gay Lussac氏法에 의해서 酒精計와 온도계를 사용하여 알콜%를 계산한결과 12·4%의 포도주를 얻었다。

③市販 알콜의 脫臭및 脫色。

시중에서 판매하는 에칠알콜 100㎖에 대하여 KMnO4를 포화시킨후 활성탄을 20g넣고 稀釋하여 water-bath에서 78·C로 유지시켜 脫臭및 脫色하였다。」

④조산 발효용 培地 제조。

上記 방법에의해서 발효제조한 포도주에 증류수를 加하여 酒精濃法 60%로 稀釋한 용액(X)과 脫臭, 脫色처리한 알콜을 증류수로서 6%로 稀釋한 용액(Y)를 各種比로 혼합하여 다음 네가지 酢酸 발효용 培地를제조하였으며 네종류의 培地는 각각 섭씨70도로 30분간 살균하였다。」

S1=x
S2=x:y=5:5
S3=x:y=6:4
S4=x:y=7:3

酢酸醱酵用 培地의 酸度는 0.1-N NaOH로하여 주석산으로 산출하였다。

酢酸菌의 순수분리및 分離菌株의 형태

1、균의 순수분리

培地…증류수 1,000㎖에 대하여 malt ex (Ballg 10)3%, yeast ex 3%, peppon 0·5%, glycerin 1·5%, beef ex 19%을 넣어 稀釋한 용액에 前記 제조한 포도주로부터 培地에 白金耳 접종하여 섭씨35도에서 48시간 醱酵을 集積培養하다음 寒天을첨가 한 上記 固體培地에 平板培養하고 생성한Colony를 2회 반복하여 순수 분리한 결과 A1, A2, A3, A4, A5, A6(사진省略)의 6菌株를 얻었다。

2、菌의 형태실험시험용 培地…감자를 0·1% 증류수에 한시간 달군후 세척 破碎하고 黃糖20g을 넣고 끓인다음 여과하여 pH7·0으로 조절하여 寒天을 첨가하였다。上記 시험용 培地를 사용하여 각각 배양하여 섭씨37도에서 48시간 분리菌株를 형태, 크기및 皮模形成의 분리菌株의 有無를 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3、分離菌株의 酸生成 비교실험및 酢酸醱酵 방법

순수분리한 6종의 菌株를 前記 醱用培地와 동일 조성을 培地를 사용하여 배양시킨다음 0.1N-NaOH로각 분리菌株의 酢酸생성을 비교실험하였다。

가장 酸생성이 많은 菌株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세가지 방법으로 酢酸 발효실험을 하였다。

1) 靜置法에 의한 酢酸 8)(사진A참조)

우수 菌株를 前記 酢酸 발효용 培地 S1, S2, S3, S4에 각각 300㎖에 대해 10g씩 殖菌하여 섭씨35도가 유지되도록 보온하며 無菌空氣를 계속 우 흐뭇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는 것이었다。그는 매우 힘겹게 입을열었다。

『짧은글짓기 식으로 하면「남을이해주면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도 일종의 신념이 될 수 있겠지」고할 수 있겠지』

아가씨는 시계를 보았다。 시계줄은 가는것이었는데, 그시계는 그녀의 정갈한 팔목을 위해서 알맞게 제조된 것이었다。

아가씨는 한참 안으로 끌어들이고, 갸냘픈 시계 줄을 쉬었다。 그리고는 포기하는 듯 세로 손가방을 만지작거렸다。 그녀의 발은 사뭇 강물찬 울렁거림으로 하여 내 눈길을 붙잡고 있었는데, 혹인 먹소리들 탐은 더벅머리가수의 밀려디들 따라 율동적으로움직이고 있었다。나는 거센 물결을거슬러 올라가듯 저항을 느끼며 눈길을 북쪽으로 뛰었다。

북교 위에는 포플한 수운들이 싸늘하게 부서지고 있었고, 그 전주 아래로 어린애들 안고있는 여자거지를 볼 수 있었다。그리고 약광고는「당신의 심장에 자신을 가지세요」하고 숨가쁜 생명을 거듭했다。

나는 얼는 그에게 용건을 꺼내야겠다고 생각했다—이번 저희 학회에서「한국인의 저항정신」에 관한 심포지엄을 하기로 했습니다고 말하려는 참인 것이다。그러나 그 말을 내놓는데 그의 태도는 나로 하여금 주저함과 저항을 느끼게 했다。「만나자는 용건은 뭐야?」라고 그는 말해야 하는 것이다。그런데도 일이 맹랑하게 되느라고 종씨는 담배나 피우고, 힘없이 발을 포갰다 풀었다하는 것이다。그의 몸짓은 내가 허기를 돋구었다。종씨는 도사리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선생님 결혼 하셨습니까?」

빌어먹을。나는 엉뚱하게 묻고 말았다。

「그럼 결혼을 안 하실 작정입니까。」

「글쎄 결혼을 안하겠단 자가 결혼을 해버렸어。대학때 한 여자주 친한 사이였지。호사하기에 아 맞은 사내한테 시집을 갔어요」

그리고 종씨는 또 담배를 피워물었다。종씨는 아련한 회상에 잠기는 몸짓으로 돌아갔다。옆의 아가씨는 또 시계를 보고나서 조금 짜증난 목소리로 코피를시켰다。 그녀는 몹시 화가난 모양이었고 자칫하다간 울음이라도 터트릴 듯했다。내가 종씨의 회상하는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조심하려고 했을 때,

「자네 연애하나?」하고, 나는 약 물었다。「안합니다」하고, 나는 간 즐거운 목소리로 말했다。만일 「네」하고 대답했더라면 그는 즉 끝이 죽었을 것이다。「안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안합니다」나는 얼른 분장난했던 여자를 생각했다。

「그것도 어떤 신념에서인가?」

「글쎄요」하고 대답했다。나는 미리하게 쓰여질 자신을 질게 화장한 위안부처럼 말하고 있었다。나는 아주 국간관을 배가 고팠다。배에서는점심을 굶었다는 시실을 상기시키면서 맹렬하게 기를앞려왔다。어서 이야기를 해버려야지, 하고 나는 한번더다짐하는 진장을 했다。

나는 열부해두었던 말을 한번 되뇌었다— 선생님 이번 저희 학회에서 한국인의 저항정신에 관한 실포지엄을 하기로 했읍니다。그때 그가물을 꿈틀했다。「내가 그 말을 하나할까?」제기랄。이야기 기전부터 두었던 이번 저희 학회에서…로시작되는 말은 허겁지겁꺼져버렸다。

「무슨 이야진데요?」

「이늘테면 신변잡기지」

「신념이라는 것은 내가 별로탐탁하게 생각하지도 않는 이야기를 꺼냈다。

▲宗氏가 들려준 재미없는이야기▼

국민학교 사학년때였다。학교는 집에서 십리가 넘어되는 면소재지에있었고, 집은 산골이었다。화창한 봄날 작문시간이었다。그때 각학급에서는 나처럼 공부를 잘하는, 영리한 아이들을모아「어머니날」에 관한 글을짓게 되었다。교감선생님이 갑독했고, 나는 열심히 어머니에 대해 생각했다。시간이 얼마쯤 지났을까。「누구를 찾으십니까」하는 교감선생님의목소리와 함께 나는 문쪽을 바라보았다。그것은 나의 어머니였는데, 그녀는 나를 찾는중이었다。어머니는 내가 할머니로 불러야할 만큼 늙어있었고, 동무들의 어머니들은 모두 젊어있었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기분이 언짢았다。「아들을 찾소」하고 어머니는 조그맣게 말하고, 아이들은 나를 쳐다보았다。어머니에겐 최충한 말이지만 이때의 내가 느낀 수모감이란 굉장한 것이었다。

어머니는 서울에있는 이종형결혼식에참석차왔던 참이었고 이종형수는진외가의 누나였다。 나를 불렀다。

나는대답하지 않았다。어머니를 보지않기위해서 고개를 숙여 버렸다。대답하지 않았다。 또불렀다。대답하지않았다。세번째 소리가 났다。

거우 일어설 수있었다。

「어머님이 오셨다」교감선생님이말했고, 어머니가 내 이름을 불렀다。

「뭐…」하고 화가나서 거우 대답했다。「뭐가 뭐야 예, 하고 대답해봐」나는 머뭇머뭇했다。

어머니도 화가 난모양이었다。그녀는 진외가로 오라고 말했다。나는응하고 대답했다。「예, 하고 못해!」교감선생님이 소리쳤다。어머니가 사라지고 나는 끝내 예, 하고 대답하지않았다。

◇國文科◇

◇表1 酢酸 醱酵用 PH및 酸度

PH및 배지	산도	PH	산도
S1	3·6		0·52
S2	3·4		0·17
S3	3·4		0·28
S4	3·4		0·47

◇表2 分離菌株의 형태 및 크기

形態 菌種	A1	A2	A3	A4	A5	A6
Colony의 빛	유백색	유백색	유백색	유백색	유백색	유백색
Colony 형태 측면	O1	O1	O2	O2	O2	O2
Colony 형태 평면	O3	O4	O4	O3	O3	O3
균의크기 (u)	0·628 ~7·079	2·146 ~7·385	0·526 ~5·729	2·854 ~6·911	3·814 ~7·798	0·812 ~5·719
균의형태	잔균 95% 구균 5%	잔균 90% 구균 10%	잔균 90% 구균 10%	잔균 5% 구균 95%	잔균 95% 구 균 5%	잔균 5% 구균 95%
피막 형성유무	유	무	무	무	무	유

◇사진C·菌株A5의 현미경사진

◇表3 分離菌株의 酸生成量

날자 균종	1	2	3	4	5	6
A1	0·22	0·29	0·37	0·41	0·46	0·59
A2	0·25	0·32	0·39	0·42	0·51	0·70
A3	—	0·12	0·19	0·22	0·27	0·39
A4	0·10	0·18	0·25	0·34	0·42	0·51
A5	0·24	0·32	0·42	0·49	0·58	0·78
A6	—	0·16	0·26	0·38	0·43	0·51

◇表4 靜置法에 의한 酸生成量

날자 배지	0	1	2	3	4	5	6	7	8	9	10	11
S1	0·52	0·59	0·73	0·82	0·97	1·26	1·46	1·68	1·83	2·01	2·26	2·41
S2	0·17	0·22	0·46	0·67	0·83	1·08	1·29	1·42	1·60	1·82	1·91	2·02
S3	0·38	0·54	0·71	0·89	1·11	1·30	1·47	1·62	1·69	1·91	2·14	2·21
S4	0·47	0·60	0·83	0·98	1·12	1·34	1·48	1·71	1·83	2·01	2·19	2·27

◇表5 通氣法에 의한 酸生成量

날자 培地	0	1	2	3	4	5	6	7	8	9	10	11
S1	0·52	0·71	1·04	1·19	1·49	1·89	2·50	2·91	3·28	3·67	3·96	4·16
S2	0·17	0·28	0·57	1·03	1·03	1·29	1·73	1·97	2·23	2·36	2·48	2·54
S3	0·38	0·46	0·69	1·26	1·26	1·65	2·08	2·32	2·60	2·82	2·99	3·19
S4	0·47	0·60	0·88	1·42	1·42	1·78	2·27	2·61	3·02	3·29	3·42	3·68

◇表6 Generator를 이용한 酸生成

날자 배지	0	1	2	3	4	5	6	7	8	9	10	11
S1	0·52	0·78	1·07	1·46	2·07	2·71	3·05	3·79	4·00	4·58	4·81	5·27
S2	0·17	0·31	0·69	1·11	1·42	1·93	2·48	2·85	3·13	3·38	3·64	3·91
S3	0·38	0·57	0·99	1·42	1·83	2·37	2·83	3·27	3·49	3·72	4·13	4·35
S4	0·47	0·94	1·38	1·68	2·1.	2·93	33·7	3·51	3·68	3·95	4·39	4·71

□ 결과및 고찰 □

①酢酸醱酵用 培地의 pH및 酸度。

(表1참조) pH는 酒精 첨가로 인하여 변화되었고 酸度는 酒精의 함량의 比가 높을수록 감소되었다。」

②分離菌株의 형태, 크기및 피막형성 有無(表2참조) (O1中心凸, Umbonate O2中心凹Umilicate O3波狀 Undulate O4切裂狀 Laccrate) 分離菌株 잔균과 구균이며 크기는 0, 5 26미크론~1, 789미크론사이였고 Colony의 빛은 전부 유백색을 나타내었다。

③여기에서 가장우수한 菌株A5를얻었다。(사진C참조)

④靜置法을 이용한 각酢酸생성은급격한 酸含量의 변화없이 발효가 서서히 진행됐음을 알수가 있으며 발효후의 과S2의 酢酸 생성량은 S4가 0, 11%증가하였다。(表4참조)

⑤通氣法을 이용한 각酢酸 발효용培地에 있어서의 酢酸의생성(表5참조) S1과S4를비교해보면 靜置法보다는6日~7日부터 발발한 발효가 진행되었음을 알수가 있었으며발효後의S1과S4의酢酸생성량은S1이0,43%증가하였다。

⑥Generator를 이용한 각酢酸발효용培地에 있어서의 조산의 생성(表6참조)。세가지 방법중에서는가장발효가 왕성하였고 表6에서와같이 발발한 발효과정을 볼수 있었으며 11일동안에 4, 75%의 조산의 증가를 보았고S4보다는 S1이 0, 50%의 증가를 보여세가지 방법중에서 제일좋은 방법임을알았다。

앞의 여러도표에서 나타난것과 같이 酢酸菌은 好氣的 조건이 될수록 좋은 결과를 나타내어 靜置法보다는 通氣法이 좋았으며 Generator 방법은 더 좋았다。

S1, S2, S3, S4, 의 각 酢酸醱酵用 培地에 있어서의 酢酸 생성량은 포도주만 사용한 S1에있어서 가장 많았으며 알콜의 稀釋比가 7對3 6對4의 비율의 경도 비교적 좋은결과를 나타 내었다。」

□ 결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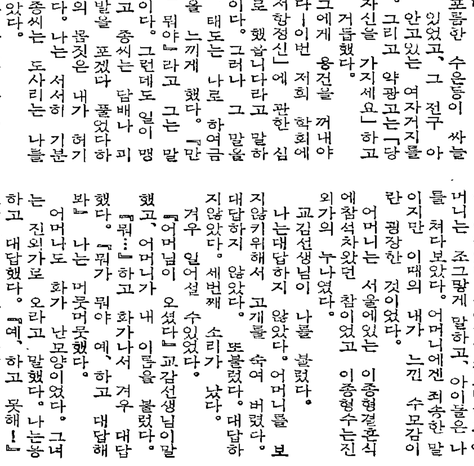
공업용 酢酸의 사용으로 市販 食酢의 유도성이 문제가 되고있는 현재에 있어서 좋은 食酢의 생산이 절실히요망되므로 본실험에서는 포도주를 이용한 食酢 제조에 대해서 실험하였다。

1、산도는 酒精의 함량의 比가 높을수록 감소되었지만 3對7의 비율이나 4對6의 비율로 稀釋한 醱酵用培地의 醱酵後 酸度가 일반적으로는 사용하기에 적당하다고 생각하며 향기나 색도 좋은 편이었다。

2、순수분리과정에서 우수한 酢酸菌을 분리하였고 분리한 균은 전부가유백색을 나타내었으며 잔균과 구균의 비율이 0·5미크론으로부터 7·7미크론의 크기로 되어있어서 Acetobctor이다。

3、Generator 방법은 靜置法 이나 通氣法보다는 酸 생성량이많았으며 靜置法보다는 通氣法이 酸 생성량이 많았다。」

〈參考文獻〉
1, Lovosier, 2, Kutzing:Industria Microbioloy(prescott.s.c) 372, 1949,
3, Martin Frobisher:Fundonentals of Microbiology 8th editi on 586, 1969,
4, Khattack.N.i.Utilization of wateranelon Juics II Acetic acid Fermentation 108~111Vole.No 5山田正一 醱酵力折法 産業圖書株式會社。19100, 9458, 1963,
6, 金 昌湜 :一般 微生物學, 宣明文化社 1969,
7, 金泰熙外6人:一般植物 實驗法 文運堂 1968,
8, 金昌湜, 李明一, 科學 技術 學術報告書 ㅏ123, 1968,
9, 10, 金 昌湜, 李明一, 科學 技術 學術報告書 ㅏ123, 1968,



◇사진B·Generator法에의한 酢酸발효。
(ㄱ.酢酸발효용培地, ㄴ.酢化磷, ㄷ.酸化液, ㄹ.살균된종류수, ㅁ.공기注入口, 황산, ㅂ.공기배출구)